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5권 제1호 2002(49-68)

충북지역 벤처산업의 입지적 특성*

김 학 훈**

요약 : 최근 한국의 벤처산업은 경제의 재구조화와 정부의 육성정책에 의해서 급속히 성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 정책을 살펴보고, 충북 지역 벤처기업의 입지여건과 특성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충북 지역 벤처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 정책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충북지역의 벤처기업에 대한 횡적인 업종별 자료와 입지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벤처기업이 제조업종에 편중되어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중부고속도로 주변에 모여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부고속도로 주변은 수도권과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지가도 싸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수도권에서 이전해 왔다. 충북지역의 벤처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성장 단계별 지원과 벤처 전용입지를 조성하고 협력 네트워크의 구성 등이 필요하다.

주요어 : 벤처산업, 육성정책, 중부고속도로, 벤처생태계, 입지여건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벤처기업(Venture Business) 수가 2001년 4월로서 1만개를 돌파했다. 1998년 말까지는 약 2,000개의 벤처기업이 등록되었으나, 그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서 매달 평균 300개 이상의 업체가 벤처기업으로 등록한 셈이 된다. 등록된 벤처기업의 설립년도를 살펴보더라도 1999년과 2000년 두 해 동안에 설립된 기업이 43.3%를 차지하며, 1998년도에 설립된 기업까지 포함하면 55.6%에 이른다(그림 1).

최근 3년간 이렇게 벤처산업이 급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신경제화에 따른 기업 환경의 변화도 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벤처기업 육성정책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벤처기업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은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벤처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은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정부는 1997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육성책과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부의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의 종류와 지원규모는 외국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방대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앙 정부의 정책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역시 지역 산업의 재구조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기업의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자금 및 세제 지원정책과 입지지원 제도를 알아보

* 이 논문은 2001학년도 청주대학교의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청주대학교 지리교육과 부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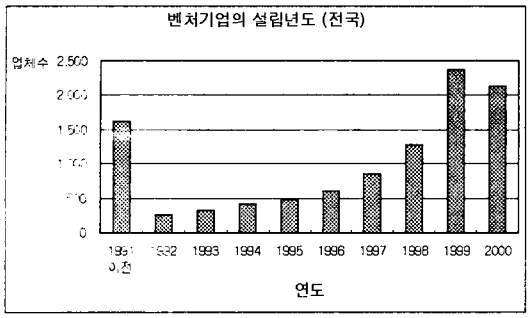

그림 1. 벤처기업의 설립년도 현황

고, 충북지역에 입지한 벤처기업들의 특성과 충북지역의 입지 여건을 분석하는 것이다.

충북을 연구 지역으로 삼은 이유는 벤처 기업의 입지에 관한 과거의 연구가 주로 대도시 내에 입지한 테헤란 밸리와 대덕 밸리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충청북도와 같이 중·소도시와 농촌에 기반을 둔 지역에 집적하고 있는 벤처 기업들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론 부분에서는 벤처 기업에 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충북 지역에서 더 많은 벤처기업들을 유치하고 벤처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그동안 벤처기업에 대한 연구는 주로 경영학과 공학기술적인 측면에서 많은 연구가 많이 축적되었으며, 벤처기업의 입지적 측면에 관한 연구 문헌은 그 수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대부분 최근 몇 년 동안에 발표되었다. 이는 외국의 문헌도 마찬가지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벤처산업의 입지보다는 첨단산업이나 과학단지(Science Park)의 입지에 관한 연구가 많은 편이다(Cooke, Uranga and Etxebarria, 1998; Gibson, 1992; Honig, 1998; Massey, Quintas and Wield, 1992; Smilor, Gibson and Kozmetsky, 1988).

국내 문헌 중에서 박용규·강신겸(1997)는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입지정책를 포괄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이환성·유승환(1998)은 지방벤처산업의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육성방안을 제시했다. 김갑성(1998)은 벤처기업과 창업보육센터의 현황과 지원방안을 연구했으며, 이덕희·박재곤(2000)은 과학기술집적지에 대한 연구에서 벤처산업에 관한 시사점들을 제시하였다. 김대영(2000)은 서울시 벤처기업의 입지특성을 테헤란 벨리를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박경환(2000)은 서울시 벤처기업의 분포를 네트워크의 공간으로 파악하여 분석하였다. 강병수(2001)는 미국 벤처기업의 성공요인에 대하여 선형모형과 비선형모형을 비교하였으며, 고정민(2001; 고정민·김정호, 2000)은 벤처생태계 접근방법으로 국내외 주요 벤처집적지의 형성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벤처생태계 접근방법을 적용하여 충북 벤처산업의 입지여건을 분석하였다. 벤처생태계는 벤처기업과 그 주위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공간으로서, 벤처생태계의 환경은 벤처에 관련된 법과 제도, 기관, 입지여건 등이 구성하게 된다. 벤처생태계에는 자연생태계와 마찬가지로 생산자(벤처기업)-소비자(벤처캐피탈)-분해자(주식시장, M&A) 간의 먹이사슬(네트워크)이 존재하며, 생태계 전체의 진화는 구성원들의 경쟁과 협력, 환경 변화에 대하여 적응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고정민(2001; 고정민·김정호, 2000)이 제시한 이상적인 벤처생태계의 개념적 모형은 그림 2와 같다. 여기서 벤처생태계가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여섯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즉, 기반시설(인프라: infrastructure), 인력공급(labor supply), 모험자본(venture capital), 시장수요(market demand), 기술창출력(technological creativity), 그리고 네트워크(network)가 추가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3장에서 충북지역의

입지 여건과 함께 제시된다.

본 논문의 서술 순서를 살펴보면, 먼저 벤처기업의 개념과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지원제도 및 입지제도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나서 충북지역 벤처기업의 업종별 · 지역별 분포, 벤처기업의 등록별 · 입지유형별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충북지역의 벤처기업 집적지에 대한 입지 여건은 벤처생태계를 구성하는 여섯 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분석하고 테헤란 밸리 및 대덕 밸리의 입지 여건과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중소기업청 벤처넷(http://venture.smba.go.kr)에 올려있는 자료와 충북 지방중소기업청의 내부자료를 주로 이용하였으며, 그 외에 일간신문 및 지방자치단체의 간행물을 참조하였다. 그리고 충북의 벤처기업인들의 친목단체인 충북벤처클럽에 등록된 기업인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2. 벤처기업 지원제도와 입지

1) 벤처기업의 정의

벤처기업(Venture Business)이란 신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사업화해서 신규시장을 개척하는 지식집약적 중소기업을 말한다. 벤처(모험)란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벤처기업의 경영상 위험성이 크지만 성공할 경우 높은 수익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벤처기업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서는 창업에서부터 수출에 이르기까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광범위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1997년에 제정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벤처기업의 개념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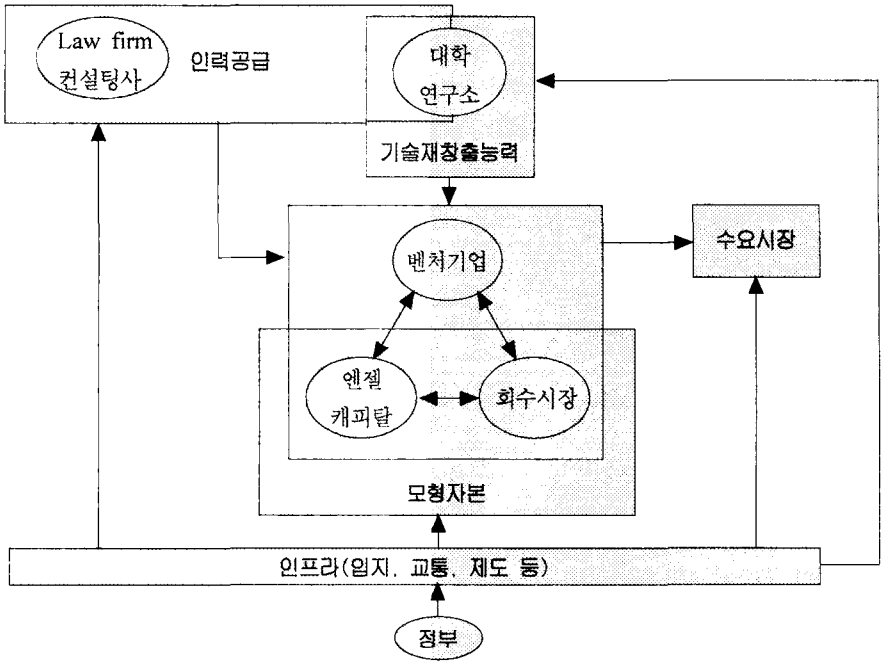

그림 2. 이상적인 벤처생태계
출처 : 고정민 · 김정호, 2000, p.5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 성장성이 높아 정부에서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증한 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중소기업청에서는 정부지원 대상 벤처기업의 기준을 정하는 벤처기업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에서는 크게 4가지 기준 중에서 한가지라도 충족하면 벤처기업으로 인증하고 있다. 즉,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이 자본금의 일부를 투자한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일정 비율 이상인 연구개발 투자기업,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사업화한 신기술 개발기업, 벤처기업 평가기관에서 인정한 신기술을 가진 기술평가기업 등으로 벤처기업을 분류하여 등록하고 있다(표 1). 그리고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아 등록되더라도 매 2년마다 재확인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모든 벤처기업이 중소기업청에 신고하고 등록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요건을 갖춘 대부분의 벤처기업이 인증받고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김대영, 2000: 180).

2) 벤처기업 지원제도

벤처기업들은 일반 중소기업들이 받는 각종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뿐 아니라, 몇가지 특례에 의한 우선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창업절차지원, 정책자금지원, 세제지원, 입지지원, 인프라원 등을 망라하고 있다. 지원을 담당하는 정부기관도 벤처기업 주무관청인 중소기업청 뿐 아니라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등 정부의 여러 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벤처기업 지원예산을 운영해 온 주무관청인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벤처기업 지원제도를 나열하면 표 2와 같다.

정부의 벤처기업 정책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중앙일보, 1999). 첫째, 벤처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철폐해 자유로운 창업 및 발전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다. 정부는 국공립대학의 교육공무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벤

표 1. 벤처기업확인제도에 의한 벤처기업의 유형분류

구 분	기 준
벤처 캐피탈 투 자 기 업	창업투자회사(조합) · 신기술사업금융업자(조합) 또는 한국벤처 투자 조합, 다산벤처(주)로부터 총주식의 10%이상 (신주 주식, 무담보 전환사채, 무담보 신주인수권부사채 포함 20% 이상) 투자받은 기업
연 구 개 발 투 자 기 업	업종별로 직전 사업연도의 연구개발비가 직전 사업연도의 총매출액의 5% 내지 10% 이상인 기업*
신 기 술 개 발 기 업	특허권 · 실용신안권(실시권은 제외) 및 기술개발사업에 의한 매출액(수출액)이 총매출액의 50%(25%) 이상인 기업
기술평가기업	벤처기업평가기관에서 기술성 또는 사업화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기업 (창업기업, 자체기술 개발기업, 특허 · 신용신안 · 신기술개발기업, 의장등록기업)

* 종전에는 업종에 관계없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가 5%이상이면 벤처기업으로 지정되었으나, 2001년 5월부터는 업종에 따라 차이를 두어 벤처확인제도를 강화하였다. 예를 들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전통제조업은 5%이상, 반도체 · 전자부품업은 6%이상, 의료 · 정밀 · 광학기계업은 8%이상, 정보처리 · 컴퓨터운용업은 10% 이상이 되어야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다

표 2. 벤처기업 지원제도

간접금융지원	창업자금, 경영 · 구조개선자금, 기술개발자금
직접금융지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사, 엔젤투자자, KOSDAQ
신용보증지원	평가특별보증제도, 사전평가보증예약제도, 기보의 전액보증지원, 기보의 부분보증지원, 기술보증제도, 회사채 발행보증제도
입 지 지 원	창업보육센터, 벤처기업집적시설, 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 실험실공장설치 · 등록,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공장등록
기술인력지원	교수 · 연구원 휴직제도, 교수 · 연구원 겸직제도, 병역특례연구요원 공급제도, 외부인력에 대한 스톡옵션제도.
판로 · 수출지원	방송광고지원, 일반수출입금융, 수출자금지원, 수출신용보증특례보험 우대지원, 수출기업화사업, 인터넷제품홍보, 해외유명규격인증 획득지원
조 세 지 원	세무조사면제, 창업중소 ·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공장설립시 조세특례, 창업보육센터운영자의 조세특례, 창업투자회사의 조례특례, 창업투자조합의 조세특례, 개인투자가에 대한 조세특례, 기관투자가에 대한 조세특례
기 타 지 원	소자본주식회사, 법률자문, 현물출자허용, 기술담보제도 및 가치평가제도, 벤처기업전국대회

자료 : 중소기업청, 벤처넷(http://venture.smba.go.kr)

처기업 창업을 위해 겸직 또는 휴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대학과 연구소를 벤처기업 창업의 전지기지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둘째, 다양한 정책자금지원과 세제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즉, 엔젤투자, 벤처캐피탈투자, 코스닥(KOSDAQ)등록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직접금융지원과 창업자금, 기술개발자금, 경영구조개선사업, 정보통신 설비구입 등의 간접금융지원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또한 조세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에 대한 각종 조세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셋째, 인프라와 마케팅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현재 벤처기업이 창업, 투자, 판매, 수출 등에 관한 모든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초고속 통신망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통합정보망도 완성할 계획이다.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를 통하여 창업 기술과 시설공간을 지원하고, 벤처빌딩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서 벤처기업의 집적을 유도하고 있다.

3) 벤처기업의 입지

벤처기업들의 업종은 제조업뿐 아니라 농업, 서비스업, 연구개발업 등으로 다양한 편이다. 이러한 벤처기업들은 도시와 농촌에 걸쳐 업종별로 유리한 조건을 갖춘 곳을 찾아서 입지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벤처집적지인 테헤란 밸리는 금융, 광통신망, 사무실공간을 기반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정보통신, 인터넷 업종의 벤처기업들이 도시의 번화가에 집적한 경우이며, 대덕 밸리는 연구단지를 기반으로 정보통신, 반도체, 기계,

생명공학 분야의 연구기술 벤처가 연구단지 주변에 집적한 경우이다. 이렇게 벤처기업은 집적배경과 업종에 따라 다른 입지 특성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벤처기업은 입지지원 특례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체보다 훨씬 다양한 입지가 가능하다. 벤처기업의 입지적 특성을 입지의 정책적 성격에 초점을 맞추어 일반적인 산업 입지와 벤처기업 특례입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일반적인 산업입지

우리나라 산업입지의 일반적인 유형은 크게 계획입지와 개별입지로 구분되고 있다. 계획입지란 국가나 공공단체 등이 일정지역을 선정하여 공장을 집단화하기 위한 일단의 공업용지를 의미하며, 개별입지는 계획입지가 아닌 지역에서 기업이 임의로 선정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아 개발한 공업용지를 말한다(표 3). 이러한 입지유형별로 공장을 설립할 때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업종과 목적, 설립비용 등에 따라 유형을 결정하게 된다(표 4). 제조업 벤처기업들은 대체로 개별 입지를 선호하고 있다. 그 이유는 대체로 개별 입지의 용지가격이 계획입지보다 싸기 때문이며, 입지지원 특례에 의한 혜택도 있기 때문이다. 개별입지를 선택하는 벤처기업들은 "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1]에 의해서 공장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개발부담금도 면제를 받을 수 있다.

(2) 벤처기업 특례입지

벤처기업들은 업종에 따라서 공장을 설립할 때 일반적인 계획입지나 개별입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또한 벤처기업을 위한 특례입지를 선택할 수도 있다(표 5, 표 6). 표 5는 우리나라의 정부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벤처기업을 위한 입지정책들을 모아놓은 것이며, 표 6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입지정책 중에서 입지지원 특례제도만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명시된 벤처기업 전용의 입지시설로는 실험실공장, 창업보육센터, 벤처기업 집적시설(벤처빌딩),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등이 있다. 실험실공장은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소속기관의 연구시설안에 도시형공장에 해당하는 생산시설을 갖춘 소규모 공장을 말하며, 생산시설의 면적은 500m^2 이내로 제한된다. 창업보육센터란 기술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장소 및 시설확보에 어려

표 3. 계획입지 및 개별 입지의 유형과 근거

구 분	유 형	법 적 근 거
계 획 입 지	국가산업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지방산업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농공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협동화단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판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 별 입 지	공장설립승인에 따른 개별입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창업사업계획승인에 따른 개별입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개별입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아파트형 공장*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아파트형 공장이란 3층이상의 집합건축물로서 6개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로 규정되어 있으며, 대부분 개별입지에 설립되지만 계획입지에서도 설립할 수 있다

표 4. 입지유형별 장·단점

구 분	장 점	단 점
개별입지	· 적기적소에 공장설립이 가능하며 공장증축이 용이(입지가능한 토지 매입후 곧 공장설립 가능) · 용지가격의 저렴(농지, 임야 등 매입비용) · 개발이익이 상대적으로 큼(매입 용지가격 대 개발후 이익이 계획입지에 비해 5~6배 수준) · 기존 지역과의 연계가 용이(구인, 원자재조달, 판로등)	· 공장설립이 복잡하고 까다로움(80여개 토지 관련 법령, 30여개 공장설립관련법령) · 기반시설의 취약(용수, 전력, 도로, 운송 등) · 환경처리시설부족으로 인한 환경 처리비용부담이 과다함
계획입지	· 기반시설의 양호(용수, 전력, 도로, 교통등) · 공장의 집단화에 따른 상호정보교환, 기술교류, 이업종교류, 협업화가 용이 · 공동 공해방지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공해배출 업종의 입주가 상대적으로 용이(폐기물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등의 운영으로 환경처리시설의 투자 및 운영비가 상대적으로 적음) · 공장설립 절차 간편(입주계약으로 공장 설립 의제처리)	· 적기, 적소에 공장용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움(선분양 후입주로 적기확보 곤란, 산업단지의 분포 편중으로 적소에 공장 용지 확보가 어려움) · 구획된 단지이므로 일단 입주하면 사업장 증축이 곤란(증축제한) · 용지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음(국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분양가는 개별 입지에 비해 2~3배 수준)

자료 : 청주시, 2000, 중소기업체 현황 및 지원안내, p.107

표 5. 벤처관련 부처별 입지정책

담당부처	정 책 명
건설교통부	첨단산업단지, 공장설립대행센터, 입지정보센터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기술연구집단화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 벤처기업전용단지 중소기업협동화단지, 중소기업전용단지, 신기술보육사업 아파트형 공장,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과학기술처	기술창업준비지원센터, 첨단기술창업보육센터, 기술혁신센터
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창업지원센터, 소프트웨어진흥구역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과학단지

자료 : 박용규·강신겸, 1997, p.65

움이 있는 창업자 또는 창업 예비자에게 개인 또는 공동작업장 등의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함과 아울러 경영, 세무, 기술지도 등의 지원을 통해 창업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성장을 유도하여 성공 가능성을 높히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하며,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은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

벤처기업집적시설(벤처빌딩)은 교통, 정보·통신, 연구, 금융등의 기능이 집중되어 기업 경영여건이 우수한 도심에 벤처기업이 집단적으로 입

표 6. 벤처기업에 대한 입지지원 특례제도

항 목	지 원 내 용
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 연구기관, 대학, 대덕단지 등에는 "건축법 및 대덕단지관리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을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벤처기업의 경우 우수한 인력이 몰려있는 연구소, 대학의 실험실에서 연구와 창업을 동시에 가능토록 지원하기 위해 "실험실 공장"을 등록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 (벤처법 제18조의 2)
도시형 공장 등록에 대한 특례	·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은 '건축법 제14조, 대덕단지 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업 배치 및 공장 등록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도시형 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인정 (벤처법 제18조의3)
벤처기업집적시설 (벤처빌딩)에 대한 특례	·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 받으면 건물주에게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어 자연히 임대료가 싸지는 효과를 거두어 · 벤처기업에게 주위의 건축물 보다 저렴한 가격에 입주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벤처법 제18조)
벤처기업 전용단지 등에 대한 특례	·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공유재산을 매각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특례 인정 (벤처법 제19조) · 건축법 등에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전용단지 내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벤처법 제 21조)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지정특례	· 일정한 지역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하여 벤처기업의 집적을 실현함과 동시에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정부의 우선 지원을 받도록 하는 특례가 인정되고 있음

자료 : 중소기업청 내부자료

주할 수 있는 공간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 빌딩 등을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 각종 조세 및 자금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도심의 벤처 입지공간 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시설이다. 단, 벤처빌딩으로 지정되면 1년 이내에 최소 6개의 벤처기업이 입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2002년 3월 현재 전국에 148개의 건물이 지정되어 있고, 충북에는 청주에 2곳이 지정되어있다. 벤처기업전용단지는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로 지정하여 개발하는 산업단지이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는 벤처기업의 집단화·협업화를 통하여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관할구역안의 일정지역에 대해 중소기업청장에게 요청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002년 3월 현재 전국에는 24곳의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충북에는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의 약 0.98km^{2}의 부지가 2002년 3월에 처음으로 지정되었다. 가장 넓은 지정면적을 가진 곳은 대덕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로서 32.89km^{2}의 면적을 가지고 있다.

3. 충북지역 벤처기업의 특성과 입지

1) 벤처기업의 업종별 · 지역별 분포

벤처기업의 전국적인 분포를 보면 전체 벤처기업의 70%이상이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하는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표 7). 이러한 벤처기업의 수도권 집중은 일반 중소기업의 수도권 집중률(55%)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 충북의 벤처기업 수는 2001년 4월 말 현재 242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지난 3년간 충북 지역 벤처기업의 수를 살펴보면, 1998년에는 71개, 1999년에는 149개, 2000년에는 225개로서, 전국적인 벤처기업 증가추세에 따라 꾸준히 증가해 왔다. 비록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의 경우 2.3% 정도로 작지만, 대도시를 끼고 있지 않은 충북지역에서 이 만큼의 벤처기업이 입지한 것은 수도권에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이 작용한 때문이다.

충북의 벤처기업들은 대부분 음성군에서 청원군에 이르는 약 60Km 구간의 중부고속도로 주변에 모여 있다(그림 3). 중부고속도로 주변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대도시권의 벤처산업 집적지에 필적할만한 규모로 벤처기업들이 집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그 이유는 중부고속도로를 이용하면 1시간 반 이내에 서울까지 갈 수 있는 유리한 교통 조건과 비교적 저렴한 지가, 그리고 세제혜택 때문이다. 고속도로 주변에서 첨단산업의 집적지가 형성되는 예는 미국의 '실리콘 밸리'와 '보스턴 루트 128'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2)]

충북 벤처기업의 시 · 군별 분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음성군에 62개 업체(25.6%)가 입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청원군에 44개(18.2%), 청주시에 42개(17.4%), 진천군에 36개(14.9%) 등의 순으로 벤처기업이 입지하고 있다(그림 3 및 표 8 참조). 이러한 4개 시 · 군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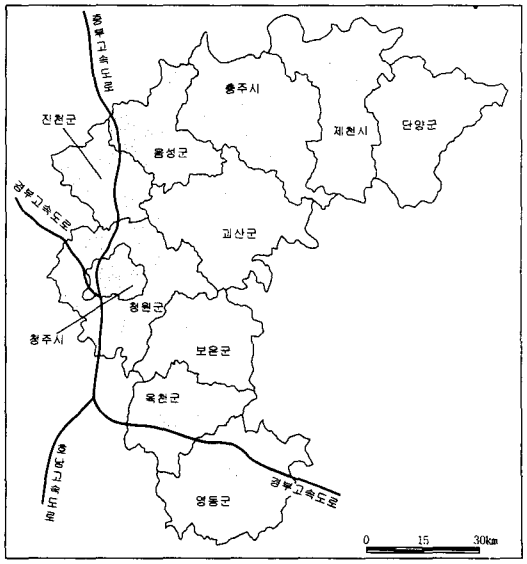

그림 3. 충북소재 벤처기업의 분포

자료 : 충북중소기업청, 벤처기업 명부 (2001년 4월말)

표 7. 벤처기업의 전국 지역별 분포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계
업체수	4,866	526	526	264	733	2,069	543	89	242	128	361	20	10,368
%	46.9	5.1	5.1	2.6	7.1	20.0	5.2	0.9	2.3	1.2	3.5	0.2	100.0

자료 : 중소기업청, 벤처넷(http://venture.smba.go.kr), 2001년 4월 말 기준

표 8. 충북 벤처기업의 업종별·시군별 분포

코드	업 종	청주시	충주시	진천군	음성군	청원군	괴산군	단양군	옥천군	보은군	제천시	영동군	충북 합계	전국 합계	L.Q.
11	농업, 임업, 어업	1					1						2 (0.8)	41 (0.4)	2.0
12	광업												0 (0.0)	7 (0.1)	0.0
21	음식료품, 섬유, 목재, 인쇄, 기록매체 제조	1	1	5	11	1	1		1	2		1	24 (9.9)	455 (4.4)	2.3
22	석유, 화학제품	7	1	7	8	9	6		3	1	2	44	88 (18.2)	741 (7.2)	2.5
23	비금속, 금속제품		1	5	9	7	1		3		1		27 (11.2)	627 (6.1)	1.8
24	기계제조업	7	2	3	7	3	1	1	1			2	27 (11.2)	1,088 (10.5)	1.1
25	전기 기기 및 장치 제조업	3	3	5	9	9	1		1	1		1	33 (13.6)	1,238 (11.9)	1.1
26	영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	5	1	3	7	9					2	1	28 (11.6)	1,140 (11.0)	1.1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3	2	1	3	4							13 (5.4)	457 (4.4)	1.2
28	자동차, 기타운송	2		3	2	1	1		1				10 (4.1)	139 (1.3)	3.2
29	가구, 재생처리, 기타 제조업	1	2	2	4	1	1			1	1		13 (5.4)	373 (3.6)	1.5
31	전기, 가스, 수도사업		1		1								2 (0.8)	6 (0.1)	8.0
32	건설업		1										1 (0.4)	137 (1.3)	0.3
33	운수, 창고, 통신업												0 (0.0)	48 (0.5)	0.0
34	정보처리, 컴퓨터운용	7	1	2	1						1		12 (5.0)	3,460 (33.4)	0.1
35	연구개발업 및 기타 사업서비스업	3	1										4 (1.7)	272 (2.6)	0.7
36	교육, 보건 및 기타 공공서비스업	1				1							2 (0.8)	52 (0.5)	1.6
37	도소매업, 소비자용품 수리업												0 (0.0)	78 (0.8)	0.0
38	호텔업, 여행사업												0 (0.0)	6 (0.1)	0.0
39	금융, 보험업												0 (0.0)	0 (0.0)	-
40	기계장비, 소비용품 임대업												0 (0.0)	3 (0.0)	-
계		41 (17.4)	41 (7.0)	17 (14.9)	36 (25.6)	62 (18.2)	45 (5.4)	13 (0.4)	1 (4.1)	10 (2.1)	5 (2.5)	7 (2.5)	242 (100.0)	10,368 (100.0)	

자료 : 충북지방중소기업청, 내부자료, 2001년 4월 말 기준

중부고속도로가 지나는 지역으로서 총 184개의 벤처기업이 모여 있어서 충북 전체 벤처기업의 76.1%가 집중되어 있다. 벤처기업의 입지분포가 중부고속도로가 지나는 시·군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교통 조건이 입지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음성군에 가장 많은 수의 벤처기업이 분포한 것은 충북에서 수도권에 가장 가까운 지역으로서 벤처기업들이 양호한 접근성을 중요한 입지조건으로 고려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충북 음성군에서 청원군에 이르는 구간의 중부고속도로 주변에는 벤처기업 뿐 아니라, 3천 여개의 일반 제조업체들도 몰려 있다.

충북 벤처기업의 대부분인 219개 업체(약 90%)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제조업 내의 업종 분포가 다양하여 상호간의 중복 업종은 드물다(표 8).

충북 벤처기업의 업종별 분포를 보면,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이 44개 업체(18.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전기 기기/장치, 영상/음향/통신장비, 비금속/금속제품, 기계, 음식료품/섬유/목재/인쇄/기록매체 제조업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충북 벤처기업들은 제조업 중심이기 때문에 정보통신 서비스업보다는 지역내의 토착화가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업종이 다양하고 계열화가 미흡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산재하여 입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충북 벤처기업의 업종분포를 전국 벤처기업과 비교해 보면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국의 10,368개 벤처기업 중에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업체수는 3,460개(33.4%)에 이르고 있어서, 이 업종이 단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 분야에는 전국 벤처기업의 약 60%가 종사하고 있다.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벤처기업들은 대부분 서울의 테헤란 밸리에 집중되어 있으며, 타 지방에는 그리 많이 분포하고 있지 않다(김대영, 2000: 184). 충북 벤처기업 중에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분야에 종사하는 업체는 12개 업체(5.0%)로서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제조업 분야에는 충북 벤처기업의 90%가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충북의 벤처기업은 테헤란 밸리의 닷컴(.com)기업과는 업종의 성격이 크게 다르다.

표 8에서 입지계수(L.Q.: Location Quotient)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입지계수 및 업체의 수가 2를 초과하는 업종은 음식료품/섬유/목재/인쇄/기록매체(2.3), 석유·화학제품(2.5), 자동차·기타 운송기기 제조업(3.2)으로서 모두 전통적인 제조업종이다. 입지계수가 1 미만인 업종 중에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서비스업의 입지계수는 0.1에 지나지 않는다.

2) 벤처기업의 등록 유형별 현황

충북 벤처기업들을 벤처기업확인제도상의 등록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벤처평가 우수기업이 42.6%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표 9). 그 다음으로는 특허기술 개발기업이 34.3%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전국적인 벤처기업의 등록 유형과 비교해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벤처평가 우수기업의 비중은 전국이 충북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특허기술 개발기업의 비중은 충북이 전국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충북 벤처기업들 중에서 특허기술을 가진 업체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은 새로운 기술의 고부가가치성을 고려할 때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표 9. 충북 벤처기업의 등록 유형별 현황

구 분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연구개발 투자기업	특허기술 개발기업	신기술 개발기업	벤처평가 우수기업	계
충 북	29 (12.0)	18 (7.4)	83 (34.3)	9 (3.7)	103 (42.6)	242 (100.0)
전 국	1,595 (15.4)	1,027 (9.9)	1,283 (12.4)	681 (6.6)	5,782 (55.8)	10,368 (100.0)

자료 : 충북중소기업청, 벤처기업 명부, 2001년 4월 말 기준

표 10. 충북 벤처기업의 입지유형

구 분	창업보육센터		농공단지	협동화단지	오창과학 산업단지	개별입지	계
	대학	기타					
업체수	16	2	4	1	2	217	242

자료 : 충북중소기업청, 벤처기업 명부, 2001년 4월 말 기준

주 : 이 표의 입지유형 분류는 충북중소기업청에 비치된 벤처기업 명부상의 주소에 근거한 분류이므로 다소 오차가 있을 수 있다. 오창과학산업단지는 현재 분양 중에 있다

3) 충북 벤처기업의 입지유형

충청북도 벤처기업들의 입지유형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업체가 개별입지를 선택한 것을 알 수 있다(표 10). 많은 제조업종의 벤처기업들은 국가 및 지방 산업단지, 농공단지, 협동화단지 등의 계획입지는 분양가격이 높기 때문에 지가가 싼 준농림지역을 업체별로 개발하여 입주하는 개별입지를 선호하고 있다. 기술개발 및 창업준비 단계에 있는 벤처기업들은 대학 또는 기타 장소에 위치한 창업보육센터를 활용하고 있으며, 제조업종인 경우 실험실공장이나 도시형공장을 운영하기도 한다.

충북지역에서 지가가 싼 준농림지역을 개발하여 개별 공장이 입지하는 기업 행태는 난개발의 원인이 되고 있다. 1987년부터 1999년까지 충청북도의 창업공장 2,247개의 입지형태를 분석한 결과, 계획입지의 공장이 344개로서 전체의 15.3%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1,903개(84.7%)는 개별입지로서 이들 공장의 대부분은 준농림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충청북도 내에서 창업공장이 가장 많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은 음성군(758개), 청원군(603개), 진천군(437개)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충청북도 전체 창업공장의 80%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다. 이들 지역은 중부 및 경부 고속도로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양호하며 지가가 비교적 싸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입지할 수 없는 업체들이 이 지역을 선호하여 입지하는 것이다(이경기, 2000).

4) 충북지역의 입지 여건

충북의 청원IC에서 음성IC에 이르는 약 60Km

표 11. 충북의 준농림지역 내 입지별 창업공장 현황

지 역	계	입 지 유 형		
		산업단지 농공단지	개별 입지	
			공장설립 가능지역	용도변경을 통한 공장 설립지역
충 청 북 도	2,247 (100%)	344 (15.3%)	1,545 (68.7%)	358 (16%)
청 주 시	9	2	7	-
충 주 시	162	25	116	21
제 천 시	15	3	10	2
청 원 군	603	90	414	99
보 은 군	30	4	20	6
옥 천 군	90	13	61	16
영 동 군	41	6	28	7
진 천 군	437	67	300	70
괴 산 군	88	13	60	15
음 성 군	758	116	520	122
단 양 군	7	3	4	-
증평출장소	7	2	5	-

자료 : 충청북도, 기업지원과 내부자료. 이경기(2000)의 논문에서 재인용

구간의 중부고속도로 주변에는 현재 180여개의 벤처기업이 입지하고 3천 여개의 제조업체가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판 '보스턴 루트 128'로 불릴 만큼 신산업지대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3] 이곳에 이렇게 많은 제조업체가 들어설 만큼 유리한 입지 조건으로는 유리한 수도권과의 접근성, 저렴한 지가, 그리고 수도권 공장의 이전에 따른 세제혜택을 들고 있다. 그러면 중부고속도로 주변 지역이 벤처 집적지로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갖추어져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벤처기업 집적지의 입지 여건은 벤처생태계 접근방법에 의해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측면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고정민 · 김정호, 2000; 고정민, 2001).

(1) 기반시설(infrastructure)

입지공간, 공항시설, 통신시설 등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기반 시설을 뜻한다. 벤처 집적지는 충분한 입지공간을 확보하고, 공항시설, 초고속 통신망, 입지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금융기관, 상품전시장 등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인력공급(labor supply)

대학 및 연구소의 고급기술 인력이나 해외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뜻한다. 대학 및 연구소는 고급인력과 전문기술자들을 교육하고 연구경험을 쌓게 하여 배출하는 인력 공급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벤처 집적지 주변에 주요 대학 및 연구소가 있는 것이 유리하다. 실리콘 밸리는 스탠포드 대학, '보스턴 루트 128'은 MIT대학, 영

국의 캠브리지 과학단지는 캠브리지 대학을 중심으로 첨단산업 집적지가 발전하였다.

(3) 모험자본(venture capital)

벤처기업의 창업초기부터 성숙단계까지 자금의 공급 및 회수 역할을 하는 자본시장의 존재를 뜻한다. 대표적인 벤처캐피탈은 엔젤(angel: 개인투자자), 창업투자회사, 신기술 금융회사, 창업(신기술) 투자조합 등이 있다.

(4) 시장수요(market demand)

벤처기업이 개발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국내외 시장이 존재하거나 수요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가를 뜻한다. 벤처 집적지에서 수요시장까지의 거리는 가까울수록 유리하지만, 제품의 성격에 따라 집적지 내의 기업간 수요시장이 형성될 수도 있고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도 있다.

(5) 기술창출력(technological creativity)

산학협동연구, 신기술기업의 창업활성화, 스핀오프(spin-off: 모기업으로부터 독립하여 창업) 등을 통해 기술이 재창출될 수 있는 여건을 뜻한다. 벤처 집적지에 핵심적인 연구시설이 있거나 첨단기술을 가진 기업이 많이 분포할 경우 스핀오프에 의해서 기술창출력이 증대된다.

(6) 네트워크(network)

벤처산업의 경제주체들간의 연계와 교류를 뜻한다. 즉, 벤처산업 집적지에서 벤처기업, 벤처캐피털, 컨설팅기업, 해외업체, 대학, 연구소, 정부기관 등이 상호 유기적으로 교류하는 것이 벤처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조건에 따라 중부고속도로 벤처집적지의 여건을 테헤란 밸리 및 대덕 밸리와 비교하여 검토해 보았다(표 12). 테헤란 밸리는 1,000개가 넘는 인터넷과 정보통신분야 벤처기업이 집중된 곳으로서, 서울이라는 대도시를 기반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반면, 대덕 밸리는 300여개의 벤처기업이 대덕연구단지를 기반으로 해서 정보통신, 반도체, 생명공학, 기계 분야의 신기술을 개발하고 소규모 실험실형 공장들을 운영하는 곳이다. 그러나 중부고속도로 벤처집적지는 단지형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고속도로를 따라가며 길게 벨트식으로 형성이 되었으며, 업종도 전통제조업을 벤처화한 경우가 많다.

중부고속도로 주변 벤처집적지의 전체적인 여건은 테헤란 밸리나 대덕 밸리보다는 열등한 것이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기반시설은 중부고속도로를 이용한 교통은 우수하며 앞으로 청주국제공항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초고속 통신망과 통합정보망은 미흡하며, 창업보육센터는 중심도시 지역에만 위치해 있기 때문에 보통 수준의 인프라로 판단된다. 인력공급 측면에서 볼 때 충북지역에서는 단순노동직에 비해서 전문인력과 숙련공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들은 대부분 수도권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이다. 모험자본(밴처캐피탈)은 서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충북은 대덕과 마찬가지로 열등한 여건을 형성하고 있다. 시장수요는 서울, 대전같은 대도시가 비교적 가까이 있으며, 충북 벤처기업의 업종은 제조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품판매에 유리한 편에 속한다. 기술창출력에서는 수도권과 대덕연구단지의 고급인력들이 이곳에 진출하여 창업하거나 기업을 이전해 온 경우가 많고 청주에 소재한 대학들에서도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벤처기업들의 업종면에서 전통 제조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기술창출력에 한계가 있다. 네트워크 여건은 기업간 분업에 의한 협력관계가 제대

표 12. 주요 벤처 집적지의 여건 비교

입지여건	테헤란 밸리	대덕 밸리	중부고속도로 벤처집적지
기반시설	○	△	△
인력공급	△	△	×
모험자본	○	×	×
시장수요	○	×	△
기술창출력	△	○	△
네트워크	○	○	×

주 : ○ 우수, △ 보통, × 열등

자료 : 테헤란 밸리와 대덕 밸리의 평가는 고정민 · 김정호(2000)에서 인용

로 형성되지 못했으며, 벤처 관련 기관의 역할 수행도 미흡하기 때문에 열악한 편이다.

전통 제조업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산업의 토착화와 연계화가 유리하다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충북지역에서는 일반 제조업체 뿐 아니라 벤처 제조업체도 본사나 연구소는 수도권으로 옮겨가고 분공장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서 네트워크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4. 정책적 제안

중부고속도로 주변 지역은 고속도로를 통한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우월하고 지가가 싼 유리한 점도 있지만, 초고속 통신망이나 전문 인력의 부족 등 불리한 여건도 있다. 지역경제를 더욱 활성화하고, 지역산업을 첨단산업 위주로 재구조화하기 위해서는 중부고속도로 벤처집적지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21세기 충북발전계획에 의하면 충북 지역발전 네트워크의 하나로서 첨단지식산업벨트를 설정하고 있다. 이 신산업벨트의 주요 축은 오송-오창-진천-음성-충주-제천을 지나게 된다. 오송은 보건의료과학단지를 중심으로 생명과학산업의 메카로 육성할 계획이고, 오창은 과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국제통신산업의 거점으로 육성될 것이다. 진천과 음성에는 수도권 첨단산업지대와 R&D 연계망을 구축하여 첨단지식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것이다. 이러한 신산업벨트를 형성하기 위해서 중부고속도로 주변에 벤처집적지를 설정하는 것은 발전계획의 실행에 있어 상승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 육성방안과 전략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1) 벤처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른 지원체계 구축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창업단계에서 성숙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원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이환성 · 유승한, 1998: 173). 중소기업청에서 제공하는 창업자금이나 조세지원, 벤처캐피탈에 의한 자금지원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풍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여기에 덧붙여서 벤처투자박람회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서 개최할 필요가 있다.

벤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보육센터의 공급 유형은 예비창업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될 수 있도록 고차적인 지원 기능을 보유한 첨단기술 인큐베이터에서부터 단순 공간 제공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싼 임

대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및 기술이전도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창업보육센터가 될 수 있는 대학교의 연구 시설이나 기타 공공 시설에 대한 세밀한 평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충북지역의 벤처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의 하나는 고급 연구원과 숙련공 등의 고급 인력의 부족이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고급 인력이 풍부한 수도권에서 필요한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기술인력지원사업을 통해 고급인력에 대한 임금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좀 더 안정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서 지역내에서 고급 인력을 충분히 양성하고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벤처기업에 대한 마케팅 지원도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중요한 전략의 하나이다. 충북지역 벤처기업들의 시장은 대부분 수도권이 되고 있지만, 시장정보와 홍보 부족으로 신규시장을 개척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해외 시장을 개척하여 수출을 추진하는 기업을 위한 정보 제공과 수출 알선도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청주지역에 벤처기업 상설 홍보관을 설립하고 서울에는 충북지역 기업을 위한 마케팅 사무소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

2) 벤처기업전용 입지시설 조성

현재 충북에 소재한 벤처기업들의 대부분은 준농림지역을 개발한 개별입지에서 창업하여 경영하고 있다. 그 이유는 계획입지에 비해 훨씬 저렴하게 부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업의 입지행태는 결국 난개발의 폐해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저렴한 계획입지를 제공해야 한다. 계획입지의 분양가를 낮추기 어려우면 임대공단을 확보해서 공급해야 한다. 이환성 · 유승한(1998)의 설문조사에서도 대부분의 벤처기업들이 장기임대 또는 임대후 분양 방식의 입지를 희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오창과학산업단지내의 오창벤처전용공단(C&S Valley)은 임대화하여 24개 벤처기업 부지에 대한 분양을 100% 완료한 바 있다. 이러한 성공사례는 벤처기업들이 값싼 임대용 부지를 찾고있다는 증거가 되며, 앞으로는 더 많은 벤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나아갈 방향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충북에서는 중부고속도로 인근에 초고속 통신망을 갖춘 벤처기업 전용단지들을 추가로 조성하고 기존의 벤처기업과 신규 기업들의 입지를 유도하여 집단화시킴으로서 무질서한 개별입지를 가급적 억제할 필요가 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최근 지정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활용하고, 오창벤처전용공단 내에 벤처빌딩을 건립하면 앞으로 많은 벤처기업들을 유치하고 육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준농림지역의 난개발 문제는 개별공장이 입주한 후에 토지 용도를 변경하는 선개발 · 후계획 방식을 허용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이다. 그러나 토지이용계획의 결정권을 대부분중앙정부가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통제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선계획 · 후개발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행정에 대한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

3) 벤처기업간 및 관련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성

충북의 벤처기업들은 개별적으로 입지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지역 내에서 생산의 계열화를 이루고 기업활동을 위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협력 네트워크가 결여되어 있다. 또한 대학 및 각급 연구기관과 벤처기업간의 네트워크 구축도 미

흡한 편이다. 1999년에 결성된 충북벤처클럽은 현재 76개 업체를 회원으로 확보하고 상호 정보 교환과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벤처기업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봉사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기업간의 기술교류는 기업의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며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특히 지역단위에서의 기업간 교류망의 형성은 지역내 기업의 창업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기업간 기술교류 및 협력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인위적으로 조성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내에 형성된 기존 네트워크를 정비하고 벤처기업들이 지역의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한다. 또한 기업의 경쟁력과 기술력의 구축에 있어서도 공공기관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는 거의 모든 중앙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간접으로 관련되어 있으나, 실무에 있어서는 상당부분을 중소기업청과 도청이 분담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기관들은 기업간의 협력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고 또한 그러한 네트워크에 직접 참여할 필요성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협력 네트워크는 충북 뿐 아니라 대전과 충남까지 확대하여 지역간의 협조와 공조가 이루어지는 것은 더욱 바람직하다.

5. 결 론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창업자금에서부터 해외수출 지원까지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벤처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정책에 힘입어 최근 3년간 수많은 벤처기업이 탄생했다. 그러나 그러한 벤처 기업의 70%이상은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는 형편이다. 비록 서울의 테헤란 밸리가 벤처 신화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지만, 대덕 밸리와 충북지역의 벤처기업 성장도 괄목할 만한 것이다.

현재 충북지역 벤처기업들의 대부분은 중부고속도로 주변에 집적하면서 신산업지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이 지역의 긍정적인 입지 여건으로는 고속도로 교통을 이용한 수도권으로의 접근성과 값싼 지가를 들 수 있다. 그러나 기업간 네트워크나 전문 인력 공급 등의 여건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충북의 벤처기업들은 정보 산업보다는 전통 제조업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중부고속도로 주변에 길게 퍼져있기 때문에, 테헤란 밸리나 대덕밸리와는 다른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

충북의 중부고속도로 주변은 큰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현재 분양중인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조성예정인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는 각각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산업과 생명공학(biotechnology)산업의 새로운 집적지가 될 것이며, 청주국제공항이 활성화되면 임공형 산업도 활기를 띨 것이다. 이러한 중부고속도로 주변의 벤처집적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벤처기업전용의 입지시설을 조성하고, 벤처기업간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현재 벤처기업들이 개별입지에 창업하면서 유발되는 난개발은 임대형 계획입지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벤처산업은 시초부터 정보통신혁명과 세계화를 배경으로 태동했으므로, 벤처기업은 세계시장을 염두에 두고 활동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벤처기업 중 수출하는 기업은 20%에도 못미친다. 세

계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성장잠재력이 제한될 수 밖에 없고, 국내시장을 확실하게 장악하지 못하면 곧 다른 나라의 유능한 업체에 국내시장을 빼앗기게 된다. 그러므로 충북의 벤처산업도 국내의 시장만 염두에 두지말고 해외 시장까지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

1) 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는 창업자가 제조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계획입지(국가, 지방, 농공단지)가 아닌 개별입지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 산림, 환경, 토지이용관련법 등에 의해 개별적으로 받아야 할 복잡한 인·허가 사항을 일괄 의제처리토록 함으로서 인·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개발부담금도 면제시키는 등 공장설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 실리콘 밸리(Silicon Valley)는 스탠포드 대학이 있는 팔로 알토(Palo Alto)에서 샌 호세(San Jose)에 이르는 약 48Km구간의 두 개의 고속도로(101번과 280번 도로) 주변 지역을 말하며, 보스톤 루트(Boston Route) 128은 MIT 대학이 있는 보스톤의 교외를 둘러싸고 있는 128번 고속도로 주변에 첨단산업이 집적하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3) 이 지역을 중앙일보(2000)에서 "하이웨이 벤처 밸리"라고 부른 적이 있으나, 충청북도에서는 2002년 3월 이 지역을 "중부하이웨이 벤처벨트"라고 명명하고 더욱 많은 벤처기업을 유치하여 벤처집적지로 육성하기로 했다.

참 고 문 헌

강병수, 2001, "미국 벤처기업의 성공요인," 한국도시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71-90.

김갑성, 1998, "벤처기업의 현황과 지원방안," 과학기술단지와 지역 활성화에 관한 학술심포지움, 한국지역사회학회, 대전·충남사회연구회, 충남대 사회과학연구소.

김대영, 2000, "서울시 벤처기업의 분포특성과 입지요인," 지리학연구 34(3), pp.179-191.

고정민·김정호, 2000, "벤처생태계의 형성과 진화," CEO Information, 240, 삼성경제연구소.

고정민, 2001, "외국의 벤처단지 형성사례와 도입방안," 충부권 신산업지대의 벤처산업 육성방안, 충북개발원 개원기념 세미나, 충북개발원·충북지역개발회, pp.11-26.

박경환, 2000, 서울시 벤처기업 네트워크의 도시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용규·강신겸, 1997,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지원방안, 삼성경제연구소.

이경기, 2000, "충북의 준농림지역 난개발 문제와 대응방안," 충북지역 난개발의 현황과 대책 토론회, 충북지역개발회·충북환경연구소.

이덕희·박재곤, 2000, 과학기술집적지 발전방안, 서울: 을유문화사.

이환성·유승한, 1998, "지방산업의 실태와 육성방안: 지방벤처기업을 중심으로," 국토연 98(38), 국토개발연구원.

중소기업청, 2001, http://venture.smba.go.kr (벤처넷).

중앙일보, 1999, "'21세기 벤처강국' 꿈을 키운다," 11월 24일.

중앙일보, 2000, "하이웨이 벤처 밸리," 1월 26일.

청주시, 2000, 중소기업체 현황 및 지원안내.

Cooke, P., Uranga, M.G. and Etxebarria, G., 1998, "Regional systems of innovation: an evolutionary perspective," *Environment and Planning* A 30, pp.1563-1584.

Smilor, R.W., Gibson, D.V. and Kozmetsky, G., 1988, "Creating the technopolis: high-technology development in Austin, Texa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4, pp.49-67.

Gibson, L.J., 1992, "Science cities or technopoles, science parks and technology parks: alternative models for university participation,"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Development Strategies for Science Town*, Korean Science and Engineering Foundation, pp.25-47.

Honig, B., 1998, "What determines success? Examining the human, financial, and social capital of Jamaican microentrepreneur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3, pp.371-394.

Massey, D., Quintas, P. and Wield, D., 1992, *High-Tech Fantasies,* New York: Routledge.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Vol. 5, No. 1, 2002(49-68)

Locational Characteristics of Venture Industry in the Chungbuk Region

Hak-Hoon Kim*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hongju University*
(e-mail: hkim@chongju.ac.kr)

Abstract : Recently, the venture industry in Korea has grown so rapidly because of the economic restructuring and the governmental inducement policies. This study first attempts to investigate the governmental policies for venture business development. Secondly, this study probes into the characteristics and the locational conditions of the venture business in the Chungbuk region. Lastly, this study tries to formulate the policies to develop the venture industry in the Chungbuk region. This study finds that the governmental inducement policies for venture business are various and extensive. From the cross-sectional and spatial-distributional analyses of venture business statistics for the Chungbuk region, it is found that the most venture businesses in the Chungbuk region are concentrated in the manufacturing sector rather than the information technology sector and they are geographically concentrated around the Joongbu expressway. Since the vicinity of the Joongbu expressway provides fast access to the capital region and cheap land, many manufacturing firms have moved from the capital region to that area in the Chungbuk region.

Key words : venture industry, inducement policy, Joongbu expressway, venture ecology, locational condition